

# TIPLONews 한국어본

2023 년 7 월호(K287)

K230630Y1

## 01 2023 년 7 월 1 일부터 대만 한국간 우선권 증명문서의 전자교환 업무를 디자인특허 등록출원에도 적용 확대

대만 지혜재산국<sup>1)</sup>은 공고를 통해 2016 년부터 대만 한국간 발명특허 출원과 실용신안특허 출원에 적용되고 있는 특허우선권 증명문서의 전자교환 업무(PDX)<sup>2)</sup>와 관련하여 이를 2023 년 7 월 1 일부터는 디자인특허 등록출원에도 추가적용, 확대키로 하였고, 이는 2021 년 조인된 「대만 한국간 디자인특허 등록출원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비망록」을 구체화 한 것이다. 한국과 대만의 디자인특허 출원인은 향후 특허우선권 증명문서의 전자교환 업무(PDX)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출원을 하고, 출원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6 )

역주:

- 1) 한국 특허청 상당.
- 2) 특허우선권 증명문서의 전자교환 업무의 영문은 Priority Document Exchange (PDX)

K230627Y1

**02수정된 「특허심사기준」 제2편 발명특허의 실체심사 제1장, 3장~제5장, 제10장, 제11장, 제14장 및 제5편 무효심판,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

대만 지혜재산국은 공고를 통해 수정된 「특허심사기준」 제2편 발명특허의 실체심사 제1장, 제3장~제5장, 제10장, 제11장, 제14장 및 제5편 무효심판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특허법 시행세칙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승인방법의 수정 및 WIPO 표준 ST.26에 준거한 XML 형식의 배열표 제출 실시에 대응하는 동시에 심사 실무상의 요구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처하고 견해를 통일하며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각 장절 내용을 재검토하여 심사원칙 및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문구를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심사기준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제2편 제1장 설명서, 특허출원 범위, 요약 및 도식
  - 1.4 심사 유의사항에서 (5)를 추가하여 명세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인용문헌으로써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원칙을 설명하였다.
2. 제2편 제3장 특허 요건
  - 5.7 권리의 계속에서 (4)를 수정하고 특허와 실용신안의 일안양청(一案兩請)<sup>2)</sup>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이 심사 전에 출원을 분할하고 원래 발명출원의 성명을 원용하는 경우, 원출원 또는 분할출원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을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3. 제2편 제5장 우선권
  - 2.7 심사상의 주의사항 1절, 절차심사기준 제1편 제7장의 규정을 참고하여 신규출원안이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후 아직 심사 전이며, 출원일로부터 15개월 미만인 경우<sup>3)</sup>에도 여전히 국내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안은 더 이상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제2편 제10장 분할 및 변경
  - 1.2.1 형식요건에서 2023년 5월 1일자로 특허법 시행세칙 제28조 제3항이 수정된 것에 맞추어 설명을 추가하였다.
  - 1.3 분할출원의 효과에서 제3장 5.7의 권리계속의 변경내용에 맞추어 원출원 또는 분할출원 중 어느 하나의 특허심사 전에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특허출원 중 하나만 계속 출원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 5. 제 2 편 제 11 장 특허권 기간 연장

1. 특허법 제 53 조에서 말하는「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약사법 제 39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한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희귀질환 예방치료 및 약물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약품도 이에 적용되므로 법규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2. 2023 년 2 월 6 일자로 예고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법 제 4 조 수정안에 맞추어 지혜재산국은 출원인이 제출한, 위생복지부가 약품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국내외 임상시험임을 이미 확인한 자료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고, 출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다시 위생복지부에 보내 확인할 필요는 없다.

#### 6. 제 2 편 제 14 장 생물상관발명

지혜재산국이 2022 년 8 월 1 일부터 명세서의 배열표에 대해 IPO 표준 ST.25 의 기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표 기재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다.

#### 7. 제 5 편 제 1 장 특허권의 무효심판

2.4.1.2 무효심판청구 처리원칙에서 무효심판 청구취지가 인용기재형식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때에, 상기 인용 기재형식의 청구항이 인용하는 부분의 청구항에 대하여 무효심판 청구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심리범위와 일사부재리 적용상황 설명을 추가하여 사례를 들었다.

#### 8. 제 5 편 제 2 장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1. 제 11 장 특허권 기간 연장의 수정에 맞추어 「희귀질환 예방치료 및 약물법」의 제 14 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새로운 약품이 추가되었으며 특허법 제 53 조도 적용된다.

2. 제 11 장 특허권 기간 연장 「6. 발명특허권 기간 연장 승인」의 내용에 따라 의약품 또는 농약 특허권, 승인된 연장 기간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다.

#### 9. 기타수정내용

법률 조문에 대응한 문구 수정이나 오기 정정 등을 포함하였다.

( 2023.06 )

역주:

- 1) 여기서 특허란 대만의 전리(專利)를 번역한 것으로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의 3 종류를 지칭한다.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 2) 하나의 창작물에 대하여 같은 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 3) 대만 특허법 제 30 조제 2 항 전항의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5 개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한 것으로 본다

**TIPLO**  
Attorneys-at-Law

### 03 녹색상표 분석 보고서 발표, 대만내는 통이(統一)기업이 수위를 차지

기업들이 녹색상표<sup>1)</sup> 출원/등록상황을 이해하고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만 지혜재산국은 녹색상표에 대해 제품분류별로 출원경향을 정리, 분석하여 「대만의 지난 10 년 녹색상표산업 비교분석」<sup>2)</sup>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중 대만 통이(統一)기업<sup>3)</sup>, 미국 애플 및 중국 알리바바 그룹<sup>4)</sup>에 의한 녹색 상표 출원 건수가 상위를 차지하였다.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인 동시에 현재 시장과 경제 방향성의 지표이기도 하다. 전 세계가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구를 구하고 원래의 녹색 대지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적 개입 이외에 산업재산인 상표 역시 이런 탄소중립 캠페인에서 중요한 일환을 담당하고 있어 많은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대만 지혜재산국이 작성한 분석보고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수행한 EU 녹색상표연구를 참고해 상표등록출원에서 채택되고 있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명으로 여과한 뒤 다시 에너지제품, 운수, 에너지절약, 재사용/재활용, 오염제어, 기후변화등 9개 항목의 대분류, 35개 항목의 소분류의 녹색상표로 정리함과 동시에 녹색상표가 그 분류의 상표출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여 기업이 녹색상표에 대한 대응이나 국제적 기후변화/탄소제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참고로써 제공한다.

분석보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만 녹색상표가 전체 상표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2013~2015년) 평균은 12.41%, 중기(2016~2019년) 평균은 14.72%, 후기(2020~2022년) 평균은 15.87%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들이 녹색상표에 대한 대응을 보다 중시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녹색 제품 전체에서 9대 분류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많은 순서로 「에너지 절약」, 「오염 제어」, 「에너지 제품」이었으며, 이들 합계는 녹색 상표 출원 건수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에 의한 녹색 상표 활동은 이들 3 개 분야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혜재산국에 따르면 녹색상표 출원 건수는 대만 내국출원인이 가장 많고 중국 일본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운수, 에너지 절약, 오염 제어,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일본은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를 제외한 모든 대분류에서 3 위 안에 들었다. 미국은 에너지 제품, 재사용/재활용, 환경보호 의식,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9 대 분류별로 출원인 상위 3 개업체를 보면 대만 통이(統一)기업, 미국 애플, 중국 알리바바가 많은 대분류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이들이 대만 녹색상표의 대규모 출원인이었다. 특히 에너지 제품, 에너지 절약, 폐기물 관리 등 3 대 분야에서 통이(統一)기업과 애플이 2 위 안에 들었다. 통이(統一)기업은 2, 7 대 분류를 제외하고 모든 대분류에서 3 위 안에 들어 있어 이 회사가 대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려는 결의를 엿볼수 있다.

대만 지혜국은 탄소중립이라는 녹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기존 제품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개선하거나 디자인해야하며, 상표 소유자와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환경 보호 요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있다. 녹색 상표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시선을 쉽게 사로잡고 기업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기업이 녹색 상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속히 녹색 상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있다.  
( 2023.06 )

역주:

- 1) 녹색상표란 환경보호와 영속적 발전과 관련된 녹색 상품 또는 녹색 서비스에 사용되는 상표를 말한다. 원자력은 제외.
- 2) 원 제목은「我國近十年綠商標產業之比較分析」
- 3) 대만기업 統一企業股份有限公司을 지칭.

- 4) 알리바바는 회사등기를 캐리비안해에 있는 영국령 케이만섬(Cayman Islands)에 두고 있으나, 본사는 중국 항주(杭州), 상해(上海), 북경(北京)에 두고 운영하고있다.



## 04 2023 년 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대만은 세계 6 위로 상승

스위스 로잔에 거점을 둔 국제경영개발원(IMD)<sup>1)</sup>가 발표한 2023 년 IMD 세계경쟁력연감 <sup>2)</sup>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64 개국·지역에서 대만은 6 위를 차지해 순위가 5 년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게다가 2012 년 이후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인구 2000 만 명이 넘는 경제국·지역만 놓고 보면 3 년 연속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4 대 분류별로 보면 대만의 정부효율성과 기업 효율성은 각각 2 계단 상승해 세계 6 위와 4 위를 차지했고 인프라는 1 계단 상승한 세계 12 위, 경제성과는 9 계단 하락한 20 위를 기록했다.

20 개 중분류 평가항목에서「경영관리」와 「과학인프라」는 세계 5 위 이내에 속했다. 또한 소분류 평가항목에서도 대만은 많은 항목에서 세계 3 위 이내에 속하며, 특히 4G 및 5G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천명당 연구개발자 수등에서는 세계 1 위를 차지하였다.

### 1. 경영성과: 전년 11 위에서 20 위로 후퇴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말단수요가 줄어들면서 제조업은 재고를 조정함으로써 무역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비교의 기초가 되는 전년도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경제」, 「국제무역」등 지표가 후퇴했지만 정부가 경제탄력성 향상과 국내투자 촉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만의「경제복잡성」이 3 위, 경제탄력성이 5 위,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은 9 위까지 올랐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가 안정을 꾀하면서 국내 유가, 전기요금이 비교적 안정돼 「물가」는 7 계단 올라 10 위를 차지했다.

### 2. 정부 효율성: 전년 8 위에서 6 위로 상승

「재정」은 4 계단 상승한 6 위를 차지했다. 이는 주로 정부가 채권 발행을 줄이고 차관 원금 상환을 늘려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제도 구조」, 「사업규제」에 대해서는 순위가 다소 후퇴하고 있으나

소비세율, 개인소득세가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 자본비용의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표는 모두 4 위로 차지했다.

### 3. 기업 효율성: 전년 6 위에서 4 위로 상승

「생산성과 효율성」, 「금융」, 「경영관리」, 「행동태도와 가치관」의 순위가 올라가 각각 7 위, 6 위, 3 위, 7 위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경영자의 기업가정신」, 「일반 대중의 전문경영인에 대한 신뢰」, 「기업의 반응과 유연성」,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능력」, 「이사회의 기업관리에 대한 효율성」 및 「기업이 고객만족도를 중시하는 정도」 등 다수의 지표에서 세계 1 위를 차지했다. 「은행 부문의 자산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업이 디지털 툴/테크놀로지를 생산성 향상에 활용하는 능력」 등 많은 지표에서 4 위를 차지하였다. 「노동시장」은 8 계단 후퇴해 25 위였지만 「일에 대한 의욕」은 세계 4 위에 달해 대만이 뛰어난 인재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 4. 인프라: 전년 13 위에서 12 위로 상승

「기본 인프라」은 전년과 같이 37 위였지만,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및 「의료와 환경」은 순위가 상승하고 있어 대만이 과학 연구력, 기술력, 이노베이션의 성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G 및 5G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천명당 연구개발자 수」 등에서 세계 1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총지출액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업의 연구개발 경비 지출액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디어 테크/하이테크가 제조업 부가가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정도」 등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다. (2023.06)

역주:

- 1) 국제경영개발원(IMD)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를 지칭
- 2) 2023 년 IMD 세계경쟁력연감은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3」을 지칭